2026년 6월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

계층과 사상을 극복한 독립운동의 전개, 의병항쟁과 6.10만세운동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올해 6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기념일은 6월 1일 의병의 날과 6월 10일 6·10만세운동기념일이다. 두 운동은 시기상 간격과 방법적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공통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분 또는 계층과 이념을 넘어선 민족적인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운동방법론의 진화를 가져왔다. 유학자에서 평민으로, 학생에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위정척사사상에서 근대적 독립운동으로, 좌우합작에서 민족유일당운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특별한 날을 기려 2026년 6월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로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제천의병 창의지인 자양영당과 서울 종로구의 파조교 6·10만세운동 선창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 제천 의병기념탑

의병이란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무장항쟁한 군사집단이다. 한말 의병은 개화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구국항쟁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유학자가 중심이 되어 반침략, 반개화 항쟁을 전개하였는데 이 중 대표적인 의병으로 제천의병을 들 수 있다.

▲ 유인석 영정

1895년 5월, 유인석은 제자들을 모아 자양영당에서 춘추를 강론하고 다음날 향음례를 실시하였다. 향음례는 선비집단의 질서의식을 다지고 일체감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유림들을 모으고 시국의 위기와 그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제천의병을 창의하였다. 이날 향음례의 참석자는 150~160명에 이를 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명성왕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자 유림들의 의병항쟁을 통한 구국의지와 명분은 더욱 굳어졌다.

제천의병은 유인석을 총수로 추대하고 이강년의 문경의병, 심상회의 원주의병, 이인영의 원주의병 부대가 합세하여 중부지역을 점령, 통치한 연합의진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충청북도는 물론 인접한 경상도 북부지역, 강원도 원주·춘천, 경기도 이천·양평·여주, 충청남도 천안까지 장악하였다. 1896년 2월 충청북도 관찰부 소재지인 충주성을 함락시키고 관찰사를 처단하는 등 전기의병사에서 최대의 전과로 평가되는 전적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천의병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력을 갖춘 관군과 일본군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1896년 8월경 중국 유하현으로 넘어가 항일근거지를 마련하면서 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제천의병의 총수였던 의암 유인석은 한말 의병장이자 학자로서, '위정척사'·'존화양이' 정신에 입각하여 일제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 저항하였다. 그가 총수로 추대된 것은 제천의병 자체가 그의 거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 8월 유인석은 유림들의 시국 대응책으로 처변삼사(處變三事)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할 것, 둘째,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대의를 지킬 것, 셋째, 스스로 세상을 등져 그 뜻을 지킬 것으로 이 중에서 각자가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권했다. 1895년 8월 유인석이 제시한 '처변삼사'는 유학자들의 행동준거가 되었다.

유인석과 유림들이 제천의병을 창의하고 '처변삼사'를 논의한 곳이 바로 충북 제천이다. 유인석은 춘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스승 유중교를 따라 제천으로 이동하여 그의 사숙에서 공부하였다. 유중교가 죽자 스승의 뒤를 이어 가르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은 의병들의 사상적 결속을 다지는 중심지가 되었다. 1906년 이 사숙에 유림들이 자양영당(紫陽影堂)을 설립하고 주자(朱子)와 송시열, 이항로의 영정을 유중교의 영정과 함께 모셨다. 훗날 유인석과 춘천의병장 이소응의 영정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1984년 12월 3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지 상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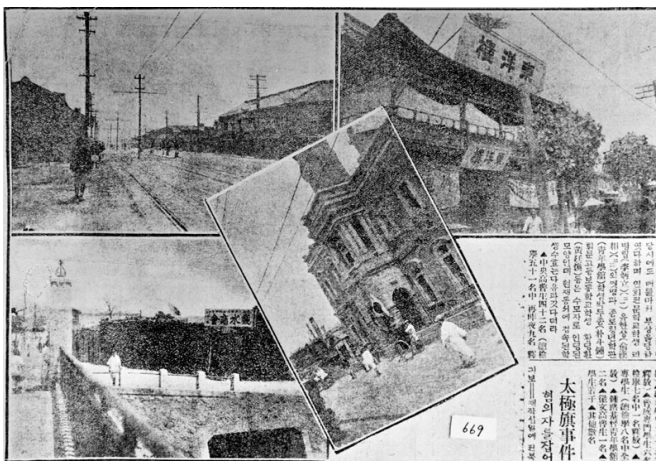
▲ 자양영당 전경

▲ 지양영당과 의병전시관 힝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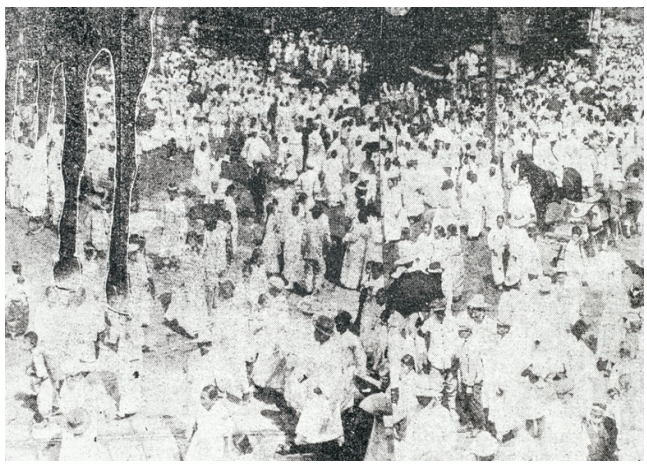
6·10만세운동은 1926년 융희황제 승하를 계기로 일어났다. 3·1운동 이후 조직된 만세시위운동으로 방법과 형태적 측면에서 이를 계승하였다. 6·10만세운동은 사회,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민족독립을 목표로 하였기에 서로 결합 또는 연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민족통일전선이 요구되던 시기에 그것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계획·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6·10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식민지시기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6·10만세운동은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학생층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깊은 연대 아래 계획·추진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천도교 세력과의 연계를 모색했다. 이는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과 박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도교 구파 지도자들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배후에서 청년세력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술을 취하였다. 일제의 분열책으로 인한 신·구파의 내부분화로 세력의 완전붕괴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공산당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1925년 11월 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겨우 당의 진용을 수습했기에 만세시위의 추진을 당 중앙기관과 분리된 형식으로 취하였다. 따라서 권오설의 책임하에 고려공산청년회에서 주도하였다. 그러나 만들어둔 격문 발송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발각되고 말았다.

학생층의 추진 주체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를 들 수 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 9월 서울에서 창립되어 1920년대 후반 서울지역 학생운동을 선도하였다. 이들은 창립 초부터 조선공산당 또는 고려공산청년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권오설로부터 인산당일 가두행렬에서의 만세선창과 격문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인산 행렬의 가두에는 학생들이 배열될 예정이었다. 이에 참여할 학생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던 통동계와 접촉하게 되었고 비밀유지를 위해 당일에 거사를 각기 추진하되, 의거 장소를 안배하는 등 연대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 6.10 만세운동시위 장소 보도



▲ 6.10 만세운동 시위 군중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계통의 거사계획이 순종의 인산일을 불과 3일 앞두고 발각되어 검거되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독자적으로 시위를 준비하였다. 한편, 일제는 모든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여 철통같은 경계를 하였다. 그리고 사상단체·종교단체·학교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속을 단행하고, 서울역과 용산역·청량리역, 여관과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점에서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일제의 검거를 피해 사직동 이석훈의 하숙집에서 격문을 인쇄하면서 거사를 준비하였고, 통동계 학생들 역시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 각 학교와 지방에 전단을 배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인산 당일의 만세운동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1926년 6월 10일 장례 행렬은 오전 8시 창덕궁에서 발인하여 종로3가-청계3가-을지로3가-을지로6가-훈련원-동대문-창신동-신설동-청량리-금곡 유릉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장례가 통과하는 길에는 30만여 명이 운집하고 있었다. 시위는 종로 3가에 위치한 단성사 극장 앞 파조교에서 만세를 선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단성사 앞에서 국장의 행렬이 통과한 뒤 동양루 앞에 도열해 있던 중앙고보 이선호의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30~40여 명이 만세를 고창하면서 격문서 1,000여 장과 태극기 30여 매를 살포하였다. 인근의 관수교 쪽에서도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일대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로써 대여 뒤에 따르던 기병의장대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 돌아서서 달리는 바람에 군중이 이리저리 몰리다가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인산 당일의 시위운동은 서울 시내 여덟 곳(파조교·관수교 부근·경성사범학교 앞·훈련원 부근·동대문부인병원 앞·창신동 채석장·신설동 고무회사 앞·동묘 앞)에서 전개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무렵까지 계속하여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가슴에 간직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면서 준비해온 격문을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8곳에서 일어난 인산 당일의 만세시위에는 500~6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에 일제는 학생들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들의 거사계획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일제의 경계와 감시가 삼엄하고, 학생들의 검거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과 탄압에 대한 항거였으며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적 의지의 표출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시작점이 된 파조교는 현대에 이르러 개천이 복개되고 도로가 확장되어 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2010년 회동천 제방이 발굴 복개되고, 2016년 종묘전교까지 복원되면서 원래 제방의 모습과 파조교와 비슷한 형태였을 교각의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현장에는 '6.1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있다.

▲ 6.10 만세운동시위 선창지인 파조교 터와 그 일대

▲ 6.10 만세운동 선창터 비석